

센다이 루선과 ‘기의종문(棄醫從文)’ 재독

이 보 경*

— <目次> —

I. 들어가며	III. 문체 유출 사건과 환등기 사건
II. 센다이 도착 전후: ‘그저 그런 곳’ 일본	IV. 러일전쟁과 센다이와의 결별 V. 나가며

I. 들어가며

루선의 국민성 개조 담론에 관한 논의에는 언제나 ‘의학을 버리고 문학에 종사하다(棄醫從文, 이하 기의종문)’를 둘러싼 해석이 함께 한다. 루선은 1902년 1월 난징의 광무(曠務)철로학당을 졸업하고 같은 해 3월 일본으로 가서 1909년 8월 귀국하기까지, 그의 나이 22세에서 29세까지 장장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 기의종문은 1906년 3월, 그의 나이 26세 때의 일이다. 소설가 루선이 되기 전 일본 유학생 저우수런(周樹人)에 대한 연구는 <악마와 시의 힘에 관하여(摩羅詩力說)> 등과 같은 초기 산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기의종문을 결정하고 센다이(仙臺)와 결별하고 도쿄로 되돌아간 뒤에 쓴 글이다.

센다이 루선에 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에피소드는 이른바 ‘환등기 사건’과 이보다 앞선 ‘문체 유출 사건’이다.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루선 사상의 결정적 전환 즉, ‘회심(回心)’이 베이징 샹오싱(紹興) 회관에서서의 ‘침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전공 교수

목' 시기에 일어났다고 보고 센다이 시절의 두 사건은 “문학 지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며 축소했다.¹⁾ 이 시기의 루쉰을 소재로 쓴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석별》에도 환등기 사건은 지극히 짧게 처리된다. 주지하다시피 이 소설은 1942년 5월 ‘대동아공동선언’의 취지에 맞는 ‘일중친화(日中親和)’의 작품을 쓰라는 일본문학보국회의 요청에 응한 결과물이다. 중국인이 일본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과 관련 있는 에피소드를 ‘대동아’ 상상의 재료로 삼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다자이 오사무로부터 다케우치 요시미가 센다이 루쉰을 축소한 까닭을 짐작하는 것은 억측만은 아닐 것이다.

이들과 달리 가오위안(高遠東)은 “‘센다이 경험’은 루쉰의 ‘기의종문’을 촉진하고 루쉰 일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루쉰 개인의 경험이 국가의 증오와 찰나에 결합함으로써 재출발의 전제와 조건으로 정합되었다”²⁾라고 하면서, 센다이 루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루쉰은 센다이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하던 시점에 이미 이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환등기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센다이 경험’ 훨씬 이전부터 ‘기의’의 조짐 혹은 더 나아가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건장한 체격과 명한 정신의 모순을 보고 국민성 개조를 위해 기의종문을 결심했다는 식의 해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루쉰 사상의 대전환이 일어난 시공간을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센다이 루쉰과 그를 둘러싼 구체적인 문맥을 다시 한번 되짚어봄으로써 기의종문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할 따름이다.

루쉰은 1902년 도쿄 고분(弘文)학원에서 2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하고 1904년 9월 센다이에 도착했고 약 1년 반 뒤 1906년 3월 센다이라와 영원히 결별했다. 센다이 루쉰의 흔적을 읽을 수 있는 글로는 1918년 <<아Q

1)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덕 역, 《루쉰》, 문학과지성사, 2003, 각각 58, 73쪽.

2) 高遠東, <“仙台經驗”與“棄醫從文—對竹內好曲解魯迅文學發生原因的一點分析”>, 《魯迅研究月刊》 第4期, 2007, 26頁.

정전> 자서>(이하 <자서>))와 1926년 <후지노 선생>이 잘 알려져 있고, 이외에 1925년 <러시아어 번역본 <아Q정전> 서와 저자 자서전 약사>(이하 <약사>))와 이른바 ‘센다이 서간’(이하 <서간>) 1통이 있다.

II. 센다이 도착 전후: ‘그저 그런 곳’ 일본

고분학원의 루쉰이 센다이 행을 결심하게 된 원인을 추적하는 데 흔히 인용되는 것은 <후지노 선생>의 첫 단락이다.

도쿄도 그저 그랬다. 우에노 공원에 벚꽃이 만발할 때 멀리서 바라보면 새빨간 가벼운 구름 같았다. 그런데 꽃 아래에는 무리를 이룬 ‘청나라 유학생’ 속성반이 빠질 수 없다. 머리 위로 틀어 올린 긴 변발을 학생모로 눌러 쓴 정수리 높이 솟아올라 후지산을 만들고 있었다. 변발을 풀어서 평평하게 틀어 올린 사람도 있었으나 모자를 벗으면 거울처럼 번들거리는 모습이 완연하게 처녀들의 머리채와 같았다. 거기다가 고개를 몇 번 돌리면 그야말로 아름다웠다.

.....(중국유학생회관은) 해질녘이면 마루방에서는 언제나 쿵쿵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울리고 더하여 연기와 먼지로 가득했다. 시사에 정통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대답했다. “그건 춤을 배우고 있어서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 보는 것은 어떨까?³⁾

우에노(上野) 공원에서 변발을 후지산(富士山) 모양으로 틀어 올리거나 풀어헤친 머리를 모자로 가린 채 벚꽃놀이를 하거나 유학생회관 마루방에서 밤마다 사교댄스에 골몰하는 유학생들을 보고 ‘다른 곳’을 떠올렸던 기억이다. 도쿄의 중국 유학생을 향한 냉소적인 시선에 이어 센다이에는 다

3) 魯迅, <藤野先生>, 《魯迅全集·朝花夕拾》 第2卷, 313頁. 이하 루쉰의 문장은 루쉰전집번역위원회가 번역한 《루쉰전집》(그린비, 2010~2018)을 참고하고 수정했음을 밝힌다.

행히도 “아직 중국 학생이 없었다”⁴⁾라고 했다. 이로써 불진대 루쉰이 동북의 추운 소도시를 선택한 것에는 이들에 대한 염증과 무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인으로부터의 도피일 뿐만 아니라, 장타이엔(章太炎)의 말을 빌려 “더 중요한 것은 ‘대독은 반드시 군체가 되고, 군체는 반드시 독으로 완성된다(大獨必群, 群必以獨成)’라고 하는 루쉰의 개체 의식”으로 발로로 해석하기도 한다.⁵⁾

센다이 도착 직후의 루쉰을 엿볼 수 있는 글은 1904년 10월 8일 장이즈(蔣抑卮)에게 보낸 <서간>으로 유학 시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편지이다. 장이즈는 저장(浙江) 출신으로 루쉰과 비슷한 시기에 도쿄에서 유학했다. 동향의 유학생들이 창간한 <저장차오(浙江潮)>(1903년 2월 창간)에 자금을 대고, 저우쥘런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없었으면 <역외소설집(域外小說集)>은 출판되지 못했다.”⁶⁾ <서간>은 역시 비슷한 시기에 유학한 런커런(任克任) 군이 보낸 <흑인 노예 호소록(黑奴籲天錄)>한 권과 <석인(釋人)> 한 편을 기쁜 마음으로 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석인>은 청대 손성연(孫星衍)이 지은 “인(人)이라는 글자와 인체 각 부분을 지칭하는 고대 한어를 고증하고 해설”한 의학 관련 논문이고,⁷⁾ <흑인 노예 호소록>은 린수(林紓)가 스토(Harriet Beecher Stowe)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번역한 것이다. 루쉰은 센다이에 온 후로 “중국의 주인공들과 꽤 멀어졌지만, 신문에 실린 괴상한 사건과 이상한 소문이 아직도 눈길에 닿는 것이 한스럽고, 고국을 생각하면 “흑인 노예의 이러한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라고 했다.⁸⁾ 린수의 이 번역은 “‘센다이 루쉰’에게 잠재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센다이 루쉰’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이해

4) 魯迅, 〈藤野先生〉, 《魯迅全集·朝花夕拾》第2卷, 313頁.

5) 元同惠, 〈仙臺的另一個魯迅〉, 《浙江社會科學》第8期, 2021, 149頁. 장타이엔의 말은 <독을 밝히다(明獨)>(1894)에 나온다.

6) 周作人, 〈紀念蔣抑卮君〉, 周作人·周建人, 《書面人生-兄弟憶魯迅(二)》, 河北教育出版社, 2001, 190頁.

7) 魯迅, 〈041008 致蔣抑卮〉, 《魯迅全集·書信》第11卷, 331頁.

8) 魯迅, 〈041008 致蔣抑卮〉, 《魯迅全集·書信》第11卷, 329頁.

는 《흑인 노예 호소록》과 대단히 가깝다”⁹⁾라는 평가는 그럴법하다.

그런데 《흑인 노예 호소록》을 읽은 후의 비판적인 소감과 달리, 당시 루쉰은 종족(민족)적 차별에 대한 감각이나 문제의식은 거의 없었거나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센다이의 일본인들은 그에게 우호적이었다. 〈서간〉에서는 “교우들과 아직 잘 지내고 교내에서의 대우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라고 했고, 〈후지노 선생〉에서도 “물건이 적으면 귀중한 대접을 받듯이”¹⁰⁾ 여러 방면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20여 년 후의 회상이 당시의 평가보다 다소 미화된 것은 가상독자로서의 일본인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당시 루쉰은 이미 일본에서 주목하고 있는 작가였기 때문이다.¹¹⁾ 분명한 것은 센다이 초기 유학생 저우수런은 종족(민족)에 따른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중국인과 일본인을 열등/우등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후지노 선생〉의 첫 문장이 “도쿄도 그저 그랬다(無非是這樣)”라고 시작되는 것은 꽤 의미심장하다. 루쉰이 도착한 메이지의 도쿄는 서양식 건축, 양복과 시계, 철도와 전차 등으로 이미 현대화를 완성한 도시였다. 게다가 루쉰이 도쿄에 있었던 메이지 30년(1897) 전후 몇 년간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에 끼어 특히 살기 좋은 평화로운 시기이기도 했다.¹²⁾ 그러나 청일전쟁의 패전국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루쉰이 보기에

9) 董炳月, <“仙臺魯迅”與國民國家想象-以〈先臺書簡〉爲中心>, 15-16頁.

10) 魯迅, <藤野先生>, 《魯迅全集·朝花夕拾》第2卷, 313頁.

11) <후지노 선생〉이 나오자 “‘센다이 루쉰’은 루쉰 개인의 기억을 벗어나 사회의 화제가 되고 열독되고 해석되는 대상”이 되는데, “루쉰 본인은 이미(강조는 인용자)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董炳月, <“仙臺魯迅”與國民國家想象-以〈先臺書簡〉爲中心>, 《魯迅研究月刊》第10期, 2005, 16-17頁. 1920년 아오키 마사루(青木正兒)가 《지나학(支那學)》에 루쉰의 소설 창작을 처음으로 소개했고, 1922년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에는 시미즈 야스조(清水安三)의 <저우 씨 세 사람(周三人)〉이 한 달 연속으로 연재되었고, 1927년에는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實篤) 주편의 《대조화(大調和)》에 루쉰의 <고향〉이 처음으로 번역되었다. 蔣英國, <百年日本魯迅研究的時空重構>, 《中國文化研究》第3期, 2020, 172頁 참고.

12) 호즈미 가즈오, 이용화 역, 《메이지의 도쿄》, 논형, 2019, 266-267쪽 참고.

도쿄는 따라잡기를 선망하는 낯선 ‘현대’가 아닌 ‘그저 그런 곳’에 불과했다. 도쿄에서의 루쉰은 “우리의 광막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중국이여! 실제로 세계의 천부(天府)이자 문명의 비조이다”¹³⁾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중국의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헌원(軒轅)에게 피를 바치기를 맹세하는 자신만만한 청년이었다. 도쿄가 이럴진대 센다이도 말할 것도 없었다. 도쿄의 숙소 ‘도오칸(東櫻館)’은 유토피아, 귀빈관, 화염계라고 할 정도로 센다이의 하숙집은 “아주 열악했다(大劣).”¹⁴⁾ 이를 두고 루쉰이 “문명 개화의 중심인 도쿄에서 한랭한 동북의 소도시 센다이에 온 후로 적응하지 못했다”¹⁵⁾라고 하는 평가는 동의하기 어렵다. 루쉰에게 있어서 도쿄도 ‘그저 그런 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일본은 현대적 경험의 충격을 준 곳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서간〉에서 루쉰은 일본 학생을 ‘아리아인’으로 지칭하고 이들과는 “특히 응대하기 귀찮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최근 며칠 저들 학생사회에 깊이 들어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그들의 사상과 행위는 결코 우리 진단 청년 위에 있지 않고, 다만 활발한 사교는 저들의 장점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황제의 영혼이 굶주린 것은 아닌 듯합니다.¹⁶⁾

일본인은 스스로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아리아인’이 되고자 하고 그렇게 자처하지만, 루쉰은 그들과의 대화에서 문화적, 지적인 자극을 받기는 커녕 귀찮을 따름이다. 그들 ‘아리아인’은 진단(震旦), 즉 중국의 청년보다 뛰어나지 않았고 중화의 시조 황제(黃帝)의 영혼은 여전히 중국 청년들에

13) 魯迅, 〈中國地質略論〉, 《魯迅全集·集外集拾遺補編》 第8卷, 5頁. 1903년 10월 《浙江潮》 第8期에 발표.

14) 魯迅, 〈041008 致蔣抑卮〉, 《魯迅全集·書信》 第11卷, 329頁.

15) 潘世聖, 〈魯迅的日本觀-魯迅體驗和理解日本的主要內容及特徵〉, 《浙江學刊》 第3期, 2004, 155頁.

16) 魯迅, 〈041008 致蔣抑卮〉, 《魯迅全集·書信》 第11卷, 329頁.

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일본의 의학 수준도 기대 이하였다. “(해부학) 초기의 책 몇 권은 선장(線裝)이고, 또 중국 번역본을 판각한 것도 있었다. 새로운 의학에 대한 그들의 번역과 연구는 중국보다 빠르지 않았다.”¹⁷⁾ 일본 의학의 발달 수준을 이렇게 판단한 바에야 루원은 굳이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된 결심과 관련된 루원의 서술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루원은 난징의 학당에서 격치(格致), 산학(算學) 등을 배우고 생리학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예전의 의사의 의론과 처방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비교하면서 차츰 중의(中醫)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속은 병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동정심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번역된 역사책으로부터 일본의 유신이 대부분 서양 의학에서 발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런 유지한 지식 때문에 후에 내 학적은 일본의 한 지방 의학전문학교에 두게 되었다.¹⁸⁾

도쿄의 예비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이미 의학을 공부하려고 결정했다. 원인 중의 하나는 나는 새로운 의학이 일본의 유신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⁹⁾

이상은 각각 <자서>와 <약사>의 일부이다. 광무철로학당을 졸업한 유학생이었으므로 애초에는 광산, 철도에 관한 학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난징에서부터 서양 의학에 관심이 있었으나 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고분학원 졸업 전이다. 난징에서든 도쿄에서든 루원은 일본의 유신의 ‘발단’은 서양 의학의 수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센다이에서 경험한 일

17) 魯迅, 〈藤野先生〉, 《魯迅全集·朝花夕拾》 第2卷, 314頁.

18) 魯迅, 〈自序〉, 《魯迅全集·吶喊》 第1卷, 438頁.

19) 魯迅, 〈我文譯本(阿Q正傳)序及著者自叙傳略〉, 《魯迅全集·集外集》 第7卷, 85頁.

본의 의학의 수준은 실망스러웠다. 중국보다 빠르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의 번역본을 보고 공부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상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런 유치한 지식’이라는 말일지도 모른다. 일본의 유신에서 서양 의학의 역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보았던 과거의 판단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루쉰은 의전의 학업을 따라가는 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리, 화학, 해부, 조직, 도이치어 등의 학습량이 많기는 했지만, 교사의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고 해부학이 힘들어도 견딜만 해서 졸업하면 “사람을 죽이는 의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²⁰⁾ 그런데 쉰다이 루쉰은 의학 공부가 영 마뜩잖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간〉의 마지막 부분이다.

학교 공부는 외우기만 하면 되고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오래지 않아 지력은 굳어 버릴 것입니다. 4년 후에는 나무인형이 될 듯합니다.²¹⁾

학교 공부는 ‘사유(思索)’가 필요 없는 ‘외우기(記憶)’ 중심이다. 추신에는 《물리신전(物理新詮)》 총 8장 중 〈세계진화론(世界進化論)〉, 〈원소주기율(原素週期則)〉 두 장 번역을 끝내고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학과목만 죽자고 공부해야 해서 폭넓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라고 했다.²²⁾ 의학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지력(腦力)’이 굳게 되고 졸업하고 의사가 된들 사유 불능의 ‘나무인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의학을 계속하려면 사유를 포기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유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의학을 그만두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 된다는 것이다. 루쉰이 《물리신전》의 번역을 끝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은

20) 魯迅, 〈041008 致蔣抑庵〉, 《魯迅全集·書信》 第11卷, 330頁.

21) 魯迅, 〈041008 致蔣抑庵〉, 《魯迅全集·書信》 第11卷, 330頁.

22) 魯迅, 〈041008 致蔣抑庵〉, 《魯迅全集·書信》 第11卷, 330頁.

당시 첨단 의 사상으로 간주된 진화론을 통해 사유의 단련을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의종문의 전환점으로 이야기되는 환등기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시 말하면 센다이 도착해서 한 달여 만에 혹은 그보다 더 앞서 의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공부를 지속해야 할 까닭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문제 유출 사건과 환등기 사건

센다이의전 시절 루쉰의 가장 강렬한 경험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른바 ‘환등기 사건’이다. 다음은 〈자서〉의 한 단락이다.

강의의 한 단락을 끝냈으나 시간이 남을 때면, 교사는 풍경이나 시사를 담은 필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남은 시간을 썼다. 그때는 마침 러일 전쟁 때여서 전쟁에 관한 필름이 자연스럽게 비교적 많아졌다. 나는 강의실에서 언제나 나의 그 동학들의 박수와 갈채의 기쁨을 따라 해야 했다. 한번은 나는 결국 필름에서 돌연 나와 오래전에 헤어졌던 많은 중국인을 만나게 되었다. 한 사람이 가운데 묶여 있었고 좌우에 여럿이 서 있었다. 하나같이 건장한 체격이었으나 멍한 정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해설에 따르면 묶여 있는 사람은 러시아를 위해 군사 일을 한 스파이다. 마침 일본군이 참수로 공개처벌을 하려던 참이었고,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이 공개처벌을 보러온 구경꾼이라고 한다.²³⁾

이상은 흔히 루쉰이 ‘건장한 체격’과 ‘멍한 정신’의 중국인과 ‘만남’ 것이 국민성 개조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용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가오위안둥(高遠東)은 위의 사건에서 환등기가 보

23) 魯迅, 〈自序〉, 《魯迅全集·吶喊》 第1卷, 438頁.

여주는 필름뿐만 아니라 강의실에 앉아서 일본 학생의 ‘기쁨을 따라(隨喜)’ 하는 루쉰의 마음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인의 ‘기쁨을 따라’한 것은 비록 피동적이라고 해도 루쉰의 민족 자존심을 자극한 것은 결코 아니며, 루쉰이 “능동적으로 ‘중국인’의 입장, 신분을 억압하고 은폐한 상황에는 러일전쟁 기간의 어떤 역사적 진실성을 띠고 있”고, “일본 유신은 대부분 서양의 의학에서 발단되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던 예전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²⁴⁾

그런데 ‘해야 했다(須)’라는 표현으로부터 능동적인 반응을 읽어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오히려 단순한 ‘피동적인 행위 이상의 어떤 강렬한 정동(情動)이 내장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를 따라 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억압과 은폐를 기도함으로써 그가 느꼈을 정동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수치이다.²⁵⁾ 일본 학생의 기쁨을 따라면서 루쉰이 성공적으로 은폐한 것은 중국인이라는 신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치심에 사로잡힌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의종문이 자신과는 구분되는 ‘멍한(麻木) 정신’의 중국인을 개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수치스런 자신에 대한 발견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4) “센다이 경험’은 부정적인 ‘생트집 사건’과 ‘환등기 사건’을 제외하고도 루쉰의 일본인의 ‘기쁨을 따라’한 마음과 후지노 선생과의 교류, 이 네 가지가 결합해야지만 루쉰의 ‘센다이 경험’에 대한 완전한 서술이 된다.” 高遠東, <“仙台經驗”與“棄醫從文—對竹內好曲解魯迅文學發生原因的一點分析”>, 26-27頁.

25) “(나르시시즘적 수치심은) 나쁜 짓을 한 선한 사람의 수치심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선한 사람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치심이다. 이런 유형의 수치심의 느낌은 공포의 한 요소를 포함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적 수치심은 자아 형성의 성찰적 프로젝트가 계속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외적 방향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기 위해 사회적으로 움츠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수치심은 부적절한 자아상을 의심하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게, 심지어는 유해하게 경험된다.” J.M.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일신사, 2007, 210쪽. 루쉰의 ‘수치’의 정동에 관해서는 이보경의 <이광수의 동정과 루쉰의 수치-신기원 시대의 정동 초탐>(《중국어어문학논집》 제123호, 2020)을 참고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루쉰은 <자서>의 창작 시점으로부터 8년 후에 쓴 <후지노 선생>에서는 같은 장면을 다소 다르게 묘사한다.

그런데 나는 (문제 유출 사건에) 이어서 중국인을 총살하는 것을 참관하는 운명이 되었다. 2학년 때 독균(毒菌)학이 추가되고 세균의 모습은 모두 영화로 보여주었다. 한 단락이 끝났는데도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안 되면 몇 편의 시사 필름을 상영했고, 당연히 모두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하필 중국인이 그 안에 끼어 있었다. 러시아인을 위해 스파이를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곧 총살되기 직전이었고 둘러서서 보고 있는 사람도 중국인이었다. 강의실에는 또 한 사람, 내가 있었다. “만세!” 그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다.

이런 환호는 매번 필름을 볼 때마다 있었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이 소리가 특별히 귀에 거슬렸다. 이후 중국에 돌아와서 나는 총살되는 범인을 한가롭게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도 언제나 술에 취한 듯이 갈채를 보냈다. —오호라! 어쩔 도리가 없구나!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²⁶⁾

여기에서 구경꾼은 처형 장소의 중국인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한 필름을 보고 있는 ‘강의실에 있는 또 한 사람, 내’가 포함된다. <자서>에서는 일본인의 ‘기쁨을 따라’ 하면서 느꼈을 ‘나’의 수치를 짐작하게 한다면, 여기서는 일본 학생들의 함성이 ‘귀에 거슬리(刺耳)’는 ‘나’의 ‘긴장’이 느껴진다. 전자가 개인적 ‘수치’라고 한다면 후자는 나를 포함한 민족적 굴욕에 따른 ‘긴장’이다. 따라서 <자서>의 서술은 ‘저들’의 국민성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후지노 선생>은 정인군자(正人君子) 다시 말하면, 문화비판을 다짐하는 말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자서>와 <후지노 선생>의 서술의 또 다른 차이는 참수가 총살로 바뀐다는 것이다. 러일전쟁 당시 중국에는 참수형이 있었으나 일본은 1870년대 초에 이미 이른바 ‘문명’적 처형방식인 교형(絞刑)으로 바꾸었다. 그런

26) 魯迅, <藤野先生>, 《魯迅全集·朝花夕拾》 第2卷, 317頁.

데 일본군은 자국에서 체포된 스파이는 교형으로 처벌했으나 만주에서는 여전히 참수형을 집행했다고 한다.²⁷⁾ 이렇게 보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은 〈자서〉일 터이다. 그렇다면 루쉰이 굳이 참수를 총살로 바꾼 것은 단순한 서사적 우연이나 기억의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 총살로 바뀜으로써 좌우에 서 있던 멍한 중국인도 함께 사라졌다. 총살 현장에서 죄수의 좌우에 구경꾼이 있을 수 없고 그들의 표정을 필름에 담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수를 총살로 바꾼 것에 대해 루쉰이 일본인을 중국인이 배울만한 문명의 표지이자 ‘거울’로 묘사하고자 했다는 해석이 있다.²⁸⁾

그런데 〈후지노 선생〉의 창작 시점을 고려하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 글은 “샤먼(廈門)대학의 도서관 2층에서 (지내던 때로) 이미 학자들에 의해 집단에서 밀려난 후”²⁹⁾에 썼다. 1925년 이른바 ‘3·18 참안’ 이후 루쉰은 ‘멍한 저들’이 아니라 어사파(語絲派)와 현대평론파 등 정인군자를 겨냥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들에 대한 비판은 샤먼에서 절정에 달했다. ‘멍한 저들’이 아니라 중국문화의 주류인 정인군자가 문체의 핵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좌우에 서 있는 멍한 중국인’은 불필요한 장면이라고 여겼을 것이라는 말이다.

〈후지노 선생〉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냉소에서 시작하여 정인군자에 대한 비판을 새삼스럽게 다짐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중국에서 〈후지노 선생〉의 수용은 “중학어문 교학을 통하여 학생들 속에서 시작되었고, 주로 사제관계의 모범적 사례로 해석되었다.”³⁰⁾ 그러나 후지노 선생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주목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후지노 선생은 검고 여윈 얼굴에 사투리로 느릿하고 강한 악센트를 가진 낯은 외투와 초라한 행색으로 ‘도적’으로 의심받기까지 한 인물이다. 게다가 탈아입구로 가던 사회

27) 程巍, 〈日俄戰爭與中國國民性批判-魯迅‘幻燈片’敘事再探〉, 《山東社會科學》第6期, 2018, 64-65頁 참고.

28) 程巍, 〈日俄戰爭與中國國民性批判-魯迅‘幻燈片’敘事再探〉, 66-67頁.

29) 魯迅, 〈小引〉, 《魯迅全集·朝花夕拾》第2卷, 236頁.

30) 張學義, 〈棄醫從文精神創痛的深情撫慰-〈藤野先生〉研究〉, 《魯迅研究月刊》第7期, 2007, 50頁.

에서 중국인에 대한 우호적 감정도 드러냈다. 이런 까닭에 그를 두고 일본의 주류사회와 거리가 먼 ‘반(反) 메이지’적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³¹⁾ 루쉰이 후지노 선생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스승으로 기억할만해서이기도 하지만 사면의 정인군자들과는 다른 부류의 주변부에 속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후지노 선생은 성심껏 도와주었으나 학생 저우수런의 생각을 잘 이해한 선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루쉰은 이미 “그때 공부를 매우 등한시하고 있었고 때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학생이었다. 루쉰의 해부도를 본 후지노 선생이 “해부도는 미술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수궁할 수 없었다. 입으로는 알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그림은 그래도 내가 그린 것이 괜찮아. 실재 모습에 대해서는 내 마음 속에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³²⁾

선생의 조언에 수궁하지 않고 자신이 그린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의학을 제대로 공부할 마음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외우기’ 공부하는 데 할 생각이 없고 ‘사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후지노 선생은 ‘귀신을 존중하’는 중국인이므로 해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기도 하고 중국 여인의 전족에 이국주의적 호기심을 보임으로써 루쉰을 ‘딱하게 만들기도 했다.’³³⁾ 어찌면 20년 후의 회상과 달리 학생 저우수런은 후지노 선생의 무구한 호의에 감사하다기보다는 거북하고 심지어는 불쾌했을지도 모른다.³⁴⁾

31) 董炳月, <“仙臺魯迅”與國民國家想象-以〈先臺書簡〉爲中心>, 17頁.

32) 魯迅, <藤野先生>, 《魯迅全集·朝花夕拾》第2卷, 315頁.

33) 魯迅, <藤野先生>, 《魯迅全集·朝花夕拾》第2卷, 316頁.

34) “후지노 선생이 당시 저우수런에게 남긴 기억은 결코 아주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근 20년이 지난 후 온갖 풍상을 겪은 루쉰의 내면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이전의 불유쾌한 장면이 달콤한 기억으로 눈앞에 떠오르므로

〈후지노 선생〉에서 문제의 필름을 보면서 일본 학생들의 박수와 함성이 귀에 거슬렸다는 서술은 이 사건에 앞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자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른바 문제 유출 사건과 잘 맞물린다. 루쉰이 후지노 선생의 호의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곤경에 처하게 된 사건인데, 이를 통해 루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중국은 약한 나라이고, 따라서 중국인은 당연히 저능아이다. 점수가 60 점 이상인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혹도 탓할 것이 없다.³⁵⁾

개인은 결코 민족(국가)와 분리될 수 없다. 중국이 약한 나라이므로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예외 없이 저능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이다. 문제 유출 사건에 이어지는 환등기 사건에서 자신이 중국인의 일부로 그려지는 것은 서사적 과정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문제 유출 사건이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환등기 사건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모습이다. 자신과 민족의 운명을 일치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루쉰의 셴다이 경험에서 중요한 사건은 환등기 사건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문제 유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기의중문이라는 문제로 돌아가 보자. 셴다이 서간, 〈자서〉, 〈후지노 선생〉으로부터 추론하면 루쉰은 의학 공부를 시작함과 거의 동시에 이미 의학을 공부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게다가 문제 유출 사건과 환등기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중국인과 분리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자각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배경에는 ‘러일전쟁’이 있었다.

씨 은사의 사진을 곁에 두게 만들기도 했다.” 林份份, 〈塑造啓蒙文學者的“理想典型”-魯迅“仙臺敘述”的再探討〉,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2013, 61頁.

35) 魯迅, 〈藤野先生〉, 《魯迅全集·朝花夕拾》 第2卷, 317頁.

IV. 러일전쟁과 센다이와의 결별

문제 유출 사건에서 루쉰이 일본 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첫 마디는 톨스토이가 〈신약〉에서 인용한 ‘회개하라’였다. “그때는 마침 러일전쟁이 었다.”³⁶⁾ 이어진 환등기 사건 역시 만주에서 벌어진 러일전쟁에 관한 필름에서 촉발되었다. 톨스토이가 차르황제와 메이지천황에게 쓴 이 편지는 1904년 6월 런던 《타임스(The Times)》에 실렸고 두 달 뒤 일본의 《헤이민신문(平民新聞)》에 번역 게재되었다. 그런데 훗날 루쉰의 톨스토이에 관한 관심과 별개로 당시 그가 톨스토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³⁷⁾ ‘회개하라’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의 루쉰의 굴욕감에 대해서는 환등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전과 청나라 유학생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 유출 사건과 환등기 사건에 관한 연구에서 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러일전쟁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글은 많지 않다.

러일전쟁은 루쉰이 도쿄 고분학원 졸업을 한 학기 앞둔 1904년 2월 10일에 발발했다. 저우젠런(周建人)에 따르면 루쉰이 도쿄에 갔을 때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중국어로 말을 걸고는 했는데, 자신이 중국어 공부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러일전쟁 직전이었기 때문에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짐작하고 중국어를 모르는 척했다고 한다. 여하튼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친밀성을 드러냈던 일본인들은 러일전쟁 발발하자 조롱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한다.

36) 魯迅, 〈藤野先生〉, 《魯迅全集·朝花夕拾》 第2卷, 316頁. 영문 제목은 “Bethink yourselves”이다.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도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독교도가 종교적 가르침을 위배하고 악의 전쟁을 자행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37) 루쉰의 저작과 서신에서 톨스토이를 언급한 곳이 근 100곳에 달하고 그의 소장도서 중에 톨스토이를 언급한 책이 10여종이나 된다고 하지만(卓光平, 〈大師對話推動中俄文化交流〉, 《紹興文理學院學報》 第6期, 2015, 63頁 참고), 톨스토이에 대한 루쉰의 관심은 이후의 일로 판단된다.

어떤 일본인은 루쉰이 중국인을 알아채면 “왜 돌아가 피를 흘리지 않느냐, 아직도 뭐 하려고 여기서 공부하고 있느냐?”라며 조롱하며 말했다. 한번은 결국 길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³⁸⁾

러시아와 일본이 중국 땅에서 전쟁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누구와 싸우라는 말인가? 물론 일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러시아와 싸우라는 말이다.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비단 일본인뿐만은 아니었다. 당시 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엄정중립’을 선포했다. 그런데 ‘일본을 비호하고 러시아를 누르자(袒日抑俄)’라고 주장한 차이위안페이(蔡元培)처럼 여론계와 유학생의 상당수는 ‘동문동종(同文同種)’이라는 이유로 일본과 연합하여 러시아와 싸울 것을 주장했다.³⁹⁾ 따라서 러일전쟁 시기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음성적 동맹’으로 쌍방은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형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이 결과 1898년에서 1907년까지 ‘중일 황금 10년’을 구가할 수 있었다.⁴⁰⁾ 그런데 항일을 주장한 1919년의 오사운동을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해석하는 역사 서술에서 이 10년 동안의 일본과 연합한 항러운동은 축소되거나 은폐되었다.⁴¹⁾ 쟌다이 루쉰에 관한 여러 해석에서 러일전쟁이라는 배경이 잘 보이지 않고 환등기, 문제 유출 등 사건 그 자체만 양각화되는 것도 이와 무관

38) 周建人, 〈關於魯迅的斷片回憶〉, 周作人·周建人, 《年少滄桑-兄弟憶魯迅(一)》, 河北教育出版社, 2001, 281頁.

39) 高遠東, 〈“仙台經驗”與“棄醫從文-對竹內好曲解魯迅文學發生原因的一點分析”〉, 27頁 참고.

40) 1900년 팔군연합군의 의화단운동 진압으로 러시아가 동북을 점령하자 중국과 일본이 위협을 느끼고 실질적인 동맹이 되고 교류가 활발해졌다. 1989년에 일본은 상하이에 동아동문서원을 세워 일본에서 온 학생에게 중국어와 중국 학문을 공부하게 했고, 1902년 경사대학당 총감 우위룬(吳汝綸)이 일본의 학교를 시찰할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기도 했다. 程巍, 〈日俄戰爭與中國國民性批判-魯迅‘幻燈片’敘事再探〉, 61頁 참고.

41) “항러운동은 1919년의 오사운동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역사서술에서 기껏 얼은 색깔만을 남기고 퇴색했다.” 程巍, 〈日俄戰爭與中國國民性批判-魯迅‘幻燈片’敘事再探〉, 62頁.

할 수 없을 것이다.

일설에는 루쉰이 동문동종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는 하지만,⁴²⁾ 이와 관련된 담론이 성행하던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1901년부터 청나라 유학생이 운집한 도쿄는 항러운동의 해외중심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화단 진압에 따른 배상으로 러시아의 동북 점령과 관련된 밀약 소식이 전해지자 도쿄는 유학생들의 시위, 의용군 조직 등으로 용광로처럼 들끓었다.⁴³⁾ 그런데 루쉰이 <후지노 선생>에서 고분학원 시절을 기억하면서 항러운동은 한마디도 않고 우에노 공원의 벚꽃 놀이와 유학생회관의 댄스만 언급한 것은 다소 의외이다. 루쉰의 또 다른 회상에 따르면 그 역시 도쿄에서 다른 유학생들처럼 “집회에도 가고 강연도 들었”지만, 이런 “유학생들 역시 시시덕거리거나 한다(嬉皮笑臉)고 느꼈다.”⁴⁴⁾ 물론 이는 우즈후이(吳稚暉)의 반만(反滿) 강연에 관한 소감이기도 한데, 하나 항러운동을 포함한 유학생의 집회와 강연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루쉰이 센다이에서는 러일전쟁에 무관심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리적으로도 러시아와 가까웠고 인구 10만의 작은 소도시 전체가 승전 분위기로 들떠 있었기 때문이다. 1905년 5월 8일 압록강 전투의 일본 승리를 시작으로 센다이에서는 총 5회에 걸쳐 경축회가 열렸고, 매번 적어도 오천 명 이상 많으면 만오천 명이 참석했다. 이 중 루쉰이 센다이에 온 이후에 개최된 경축회만 해도 총 4회였다.⁴⁵⁾ 루쉰이 경축회에 직접 참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작은 소도시의 열띤 분위기를 애써 모른척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환등기 필름을 보던 강의실의 루쉰처럼 시민들의 열기에 동조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억측일 수도 있겠으나, 적

42) 高遠東, <“仙台經驗”與“棄醫從文-對竹內好曲解魯迅文學發生原因的一點分析”>, 27頁. 필자는 ‘同文同種’이라는 단어로 《魯迅全集》을 검색해보았으나 관련 문장이나 문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43) 程巍, <日俄戰爭與中國國民性批判-魯迅‘幻燈片’敘事再探>, 67頁.

44) 魯迅, <因太炎先生而想起的二三事>, 《魯迅全集·且介亭雜文末編》, 578頁.

45) 元同惠, <仙臺的另一個魯迅>, 《浙江社會科學》 第8期, 2021, 149頁.

어도 일본이 백인종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명실상부한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체감했을 것이다.

루쉰은 일본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저우 쥘런(周作人), 그리고 위다푸(郁達夫), 귀모뤄(郭沫若) 등과 달리 일본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논한 글을 남기지 않았다. 일본은 국민성에 관한 논의에서 하나의 참조로써 간간이 언급될 뿐이고 러일전쟁에 관한 입장을 뚜렷하게 밝힌 적도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스파르타의 혼(斯巴達之魂)>은 꽤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 글은 1903년 6월 15일과 11월 8일 <저장차오(浙江潮)>(제5기와 제9기)에 발표되었다. 주석에 따르면 이 잡지 제4기 ‘유학계 소식 (2) 항러사건’에는 러시아에 맞선 유학생의 의용대 조직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또한 베이양(北洋) 대신에게 보낸 의용대의 편지에는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대항해서 싸운 테르모필레 전투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⁴⁶⁾ <스파르타의 혼>은 바로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不勝則死)”⁴⁷⁾는 정신의 이 전투를 극화한 작품이다. 이 글의 창작 배경을 고려하면 중국의 청년들에게 일본과 연합하여 러시아에 대항해서 싸울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의학을 그만두고 도쿄로 되돌아가서 쓴 <악마와 시의 힘에 대하여>에는 두 명의 러시아 시인 푸시킨과 레르몬토프가 소개된다. 그는 푸시킨의 차르 옹호를 ‘짐승의 사랑(獸愛)’⁴⁸⁾이라고 비판하고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레르몬토프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에게 있어서 차르 러시아는 칭 황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루쉰은 메이지유신으로 성공적으로 현대사에 진입한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승리는 유럽인에 대한 황인종의 승리이기도 했다. 따라서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반(半)식민지의 여러 문인처럼 루쉰 역시 일본의 승전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여는 중국의 ‘광명’을 예감했을지도 모른다.⁴⁹⁾

46) 魯迅, <斯巴達之魂>, 《魯迅全集·集外集》 第7卷, 16-17頁, 주석 1.

47) 魯迅, <斯巴達之魂>, 《魯迅全集·集外集》 第7卷, 10頁.

48) 魯迅, <摩羅詩力說>, 《魯迅全集·墳》 第1卷, 91頁.

다시 예의 환등기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참수/총살 직전의 중국인이 러시아가 아니라 일본을 위한 스파이였다면 어떠했을까? 루쉰은 그 중국인이 하필 러시아 스파이였기 때문에 강렬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가 일본 스파이였다면 같은 장면을 다르게 해석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러일전쟁 중에는 민족(종족)담론이 아니라 황인종과 백인종의 전쟁이라는 인종담론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1905년 9월 러시아군과 일본군의 만주에서의 완전한 철수를 규정한 러일조약이 체결되면서 양상은 달라진다. 일본인들은 이 조약을 권리의 상실과 국가의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1906년 1월 중국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에 일본에서는 중국인을 조롱하는 신문기사가 실리기 시작하는 등 전쟁 기간에 잠복되어 있었던 중국인의 열근성에 관한 담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로써 ‘중일 황금 10년’은 마침내 정점을 지나 과국을 향해 치닫게 된다.⁵⁰⁾ 루쉰이 이른바 문체 유출 사건과 환등기 사건을 경험한 시기는 바로 1906년 1월이다. 루쉰이 센다이와 결별하고 ‘중문’을 위해서 도쿄로 향한 것은 일본이 보여준 광명의 예감과 중국인의 열근성에 관한 담론의 재부상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49) “청일전쟁의 승리는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러일전쟁의 승리는 아시아·아프리카에서 본격적인 민족해방운동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렸다. 일본이 서구 제국주의의 대국 러시아를 물리쳤다는 뉴스는 아시아, 아랍,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혼을 일깨웠다. 이 1905년의 ‘채관 쇼크’는 타고르, 쉰원, 간디, 루쉰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에즈의 아랍인 항만노동자에서 아프리카의 흑인, 터키, 인도, 필리핀 민중들에게 자신들의 앞날에 ‘광명’이 있다는 사실을 강렬하고 깊이 예감케 했다. 이러한 반향에는 수많은 증언이 있어 우리 일본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실제로 일본은 그 후 이들의 기대와 원망을 저버렸지만, 그들은 그 환상에 힘을 얻고 자력으로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이로카와 다이키치 저, 박지운 역, 《메이지의 문화》, 삼천리, 2015, 229-230쪽.

50) 程巍, 〈日俄戰爭與中國國民性批判-魯迅‘幻燈片’敘事再探〉, 68頁. 러일 강화조약의 조인 당일인 메이지 38년(1905년) 9월 5일 도쿄의 히비야공원에는 3만 명의 군중이 참여하는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140여 개 경찰서와 파출소를 습격했으며, 이에 메이지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출동시켜 시위를 진압했다. 호즈미 가즈오, 이용화 역, 《메이지의 도쿄》, 345-346쪽 참고.

V. 나오며

이상에서 센다이 루쉰을 통하여 그의 기의증문에 관하여 새롭게 읽어보
고자 했다. 루쉰의 ‘기의’는 문체 유출 사건과 환등기 사건을 경험하기 훨씬
이전, 의학 공부를 시작함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
다. 그가 가장 우려한 것은 의학 공부로 사유 불능의 인간을 만들 수도 있
다는 것이었다. 기의의 출발에는 국민성 개조라는 목표에 앞서 ‘사유’하는
인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기의의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는 결단의 시기를 결정해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등기 사건에서 강조되는 것은 루쉰의 ‘명한’ 중국인의 발견
이다. 그런데 <자서>에서 묘사된 ‘명한’ 중국인이 <후지노 선생>에서 삭제
되었다. <자서>의 참수가 역사적 진실에 가까웠지만, 루쉰은 <후지노 선생>
에서 참수를 총살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명한’ 중국인을 삭제할 수 있었
다. 루쉰의 생애에서 ‘명한’ 중국인의 발견이 차지하는 의미는 쉽사리 축소
하기 어렵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러일전쟁을 둘러싼 중국과 일
본의 문맥을 함께 고려해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체 유출 사건에서는
러일전쟁을 반대하는 톨스토이의 ‘회개하라’라는 표현이 루쉰을 모욕했고,
환등기 사건에서는 러시아 스파이 활동을 한 중국인이 있었던 것이다.

루쉰은 고분학원 시절 도쿄 유학생들의 시위에 크게 호응하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항러운동을 고무하는 <스파르타의 혼>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루쉰이 도착한 센다이는 일본의 승전 분위기로 한껏 고무되어 있
었고 일본은 현대화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국가로 보였을 것이다. 러일전쟁
에서의 일본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사의 변동을
절실하게 예감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루쉰이 센다이와 결별하고
‘중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문체 유출이나 환등기 등과 같은 ‘사건’에
만 집중하기보다는 러일전쟁과 이를 둘러싼 세계사적 담론 지형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덕 역, 《루쉰》, 문학과지성사, 2003.
- 루쉰전집번역위원회, 《루쉰》, 그린비, 2010~2018.
- J.M.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일신사, 2007.
- 이로카와 다이키치 저, 박지운 역, 《메이지의 문화》, 삼천리, 2015.
- 이보경, <이광수의 동정과 루쉰의 수치-신기원 시대의 정동 초탐>, 《중국어문학논집》 제123호, 2020.
- 호즈미 가즈오, 이용화 역, 《메이지의 도쿄》, 논형, 2019.
- 程巍, <日俄戰爭與中國國民性批判-魯迅‘幻燈片’敘事再探>, 《山東社會科學》 第6期, 2018.
- 董炳月, <“仙臺魯迅”與國民國家想象-以〈先臺書簡〉爲中心>, 《魯迅研究月刊》 第10期, 2005.
- 潘世聖, <魯迅的日本觀-魯迅體驗和理解日本的主要內容及特徵>, 《浙江學刊》 第3期, 2004.
- 高遠東, <“仙臺經驗”與“棄醫從文-對竹內好曲解魯迅文學發生原因的一點分析”>, 《魯迅研究月刊》 第4期, 2007.
- 蔣英國, <百年日本魯迅研究的時空重構>, 《中國文化研究》 第3期, 2020.
- 林分份, <塑造啓蒙文學者的“理想典型”-魯迅“仙臺敘述”的再探討>,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2013.
- 魯迅, <摩羅詩力說>, 《魯迅全集·墳》 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 <吶喊〈自序〉>, 《魯迅全集》 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 <小引>, 《魯迅全集·朝花夕拾》 第2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 <藤野先生>, 《魯迅全集·朝花夕拾》 第2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 <我文譯本〈阿Q正傳〉序及著者自叙傳略>, 《魯迅全集·集外集》 第7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斯巴達之魂〉,《魯迅全集·集外集》第7卷,人民文學出版社,2005.
- 魯迅,〈中國地質略論〉,《魯迅全集·集外集拾遺補編》第8卷,人民文學出版社,2005.
- 魯迅,〈041008 致蔣抑卮〉,《魯迅全集·書信》第11卷,人民文學出版社,2005.
- 亓同惠,〈仙臺的另一個魯迅〉,《浙江社會科學》第8期,2021.
- 張學義,〈棄醫從文精神創痛的深情撫慰—〈藤野先生〉研究〉,《魯迅研究月刊》第7期,2007.
- 周建人,〈關於魯迅的斷片回憶〉,周作人·周建人,《年少滄桑—兄弟憶魯迅(一)》,河北教育出版社,2001.
- 周作人,〈紀念蔣抑卮君〉,周作人·周建人,《書面人生—兄弟憶魯迅(二)》,河北教育出版社,2001.
- 卓光平,〈大師對話推動中俄文化交流〉,《紹興文理學院學報》第6期,2015.

<Abstract>

This essay explores a new understanding of Lu Xun's stay in Sendai along with his famous event "Abandoning Medicine for Literature." Lu Xun's "abandoning of medicine" began simultaneously with his study of medicine. This is because "deliberation" was the most important value for Lu Xun. The beginning for Lu Xun's abandoning of medicine prioritizes an importance of deliberation for human beings, which was even more important than his lifetime mission of recreating Chinese national character. The deletion of portrayal of absent-minded Chinese in "Mr. Fujino" is hereby significant. While Lu Xun's discovery of problematic Chinese is meaningful, the influence of Russo-Japanese War

on Lu Xun should be noted as well. The Question Leak Incident, which took place before the Lanternslide Incident, also has the Russo-Japanese War as a background. Lu Xun's seek for literature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events that took place precisely in Sendai. The Japanese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heralded national liberation for the intellectuals of colonial citizens; at the same time, the resurrection of racial discourse came around such as in a form of Chinese inferiority. The Russo-Japanese War as well as the changes made to the global discourses may have been a critical background for prompting Lu Xun's seek for literature.

Key Words : 루쉰(Lu Xun), 기의종문(Abandoning Medicine for Literature),
센다이(Sendai), 러일전쟁(Russo-Japanese War), 국민성(National
Characteristics)

